

함께 해 보실래요?

나라 안팎 경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서로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누면서 살아간다면 상황은 어려워도 마음만은 따뜻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2008년 250여가구, 2009년 300여가구, 2010년 330여가구, 2011년 390여가구, 2012년 420여가구……

중앙모임은 밀반찬 지원 결식이웃 대상자를 해마다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밀반찬 조리 봉사를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 시작하기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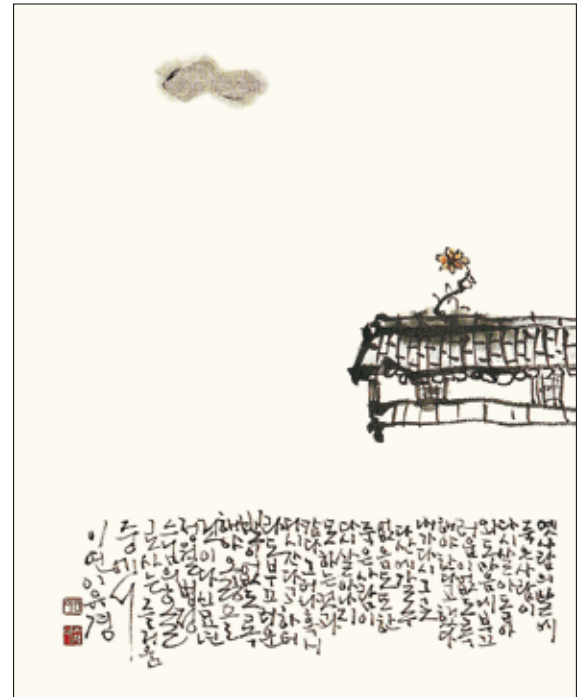
올해로 13년 째 이어진 이 활동은 초기에는 성북구 거주자가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성북구를 비롯하여 동대문구, 종로구, 강서구, 노원구, 마포구로 확대되어 총 420여가구에 매주 반찬을 지원하고, 격월로 농협상품권, 김치를 전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 100여가구에게는 전화말벗을 해드리면서 실태조사도 겸하고 있습니다.

밀반찬 조리 봉사는 재료를 다듬고, 조리하고, 포장하고, 청소까지, 이후에는 배달 봉사자의 수고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후까지 행해지는데, 일손이 조금 부족한 날이 있고 때론 남자 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합니다. 내 사정도 여의치 않을 수 있으나 서로의 어려움을 나눠 가지려는 마음으로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마음 · 세상 · 자연

맑고 향기롭게

2012. 6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





향기로운 삶

옛사람의 말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와도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내가 다시 그곳 다산에 갈 수 없음도

또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혹시 다시 간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운 빛이 없도록 해야 옳을 것이다.

- 범정스님의 '홀로 사는 즐거움' 102쪽 -



하늘을 향해 진실만을 말하며
나 자신 아름답게 꽃 피우자
표지 그림 및 설명 • 이연 이유경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7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7월 7일	오후8시~10시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7월 14일	오후8시30분~새벽4시	설법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7월 14일	오후9시~새벽4시	길상선원
지장재일 기도	7월 7일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기도	7월 13일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 기도	7월 19일	9시 50분	극락전
백중 초재	7월 21일	9시 50분	극락전
백중 2재	7월 28일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 기도	매일	새벽4시,9시50분,저녁7시	극락전
지장전 기도	매일	새벽4시,9시50분,저녁7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9시 50분	설법전
청년회 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소강당
어린이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중고등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도서관
거사님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 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지장회 정기법회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합창단 정기법회	매월 넷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1시 20분	소강당